

# 選集출판과 저자의 양심

## 황필호

동국대 철학과교수

외국인이 우리나라 출판계를 보면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발표되었던 잡문, 수필, 에세이가 '대표에세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새로운 책제목과 산뜻한 장정으로 몇권씩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무명작가가 자신의 이름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개인비용으로 다시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베스트셀러 작가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수많은 독자를 가진 인기작가들,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위대한 영국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1711~1776)은 「인간본성론」이라는 대저를 「인간이해에 관한 탐구」라는 소책자로 축약해서 발표한 일이 있다. 이것은 보통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도의 철학성을 가진 심오한 저서였기에 축소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대표에세이집들은 우선 그 내용이 그렇게 심오한 것도 아니며, 또한 엄밀히 말하면 축소판이 아니라 짜깁기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유명작가의 중요한 작품들만 모아서 문고판 형식으로 출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문고판의 대부분은 그를 연구하는 후학들이 교재나 대중교육의 필요에 의하여 만드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 자신이 직접 생전에 인세를 받는 추가수입원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 독자들은 책을 살 때도 '신작'과 '대표'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나도 벌써 20권 이상의 책을 저작하거나 번역했다. 그리고 종교철학 시리즈, 사회정치철학 시리즈, 철학적 여성학 시리즈를 제외한 순수한 철학적 에세이 시리즈만 해도 「삶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사랑은 질투가 아니다」 「남자의 눈물, 여자의 웃음」 등의 6권을 저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가 생각해도 제목이 너무 긴, 「울고 있던 그녀가 어느새 주먹을 꼭 쥐네 : KBS 여성초대석에 비친 이 땅에 사는 여성의 고민들」이란 여성관계 에세이집도 저작했다.

물론 나는 3권의 신작에세이집을 내면 그 중에서 이것 저것을 뽑아 다시 3권의 대표에세이집을 내는 A급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다. 그래도 원고문치를 출판사에 넘기면서 7천부에 해당하는 인세를 받을 정도니까 B급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글을 한편도 쓰지 않고 새로운 신작에세이집을 6~7권은 낼 수 있다.

대표에세이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저자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추가로 경제적 인 이익을 얻는다. 또한 저자의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는 독자들에게 저자의 가장 좋은 글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독자가 책을 사지 않는 경우에도 항상 나가는 책광고를 통하여 저자의 대중성을 지속시켜 준다.

나는 아직 낮 간지러워서 차마 대표에세이집을 내지 않았다. 이것이 독자에 대한 저자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최소한의 양심이 출판사들의 즐기한 유혹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나 자신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심정이다.

권두서평 2 자료로 집대성된 우리문학의 내용증빙-김중회  
권영민 지음 「한국문인대사전」

특집 4 내가 추천하는 내책 한권

우리시대의 인기저자 93인에게 듣는다

김윤식/서정범/오규원/허영자/한무숙  
이시영/박희진/이호철/정용병/이오덕  
조동일/김이연/하재봉/한승원/조선작  
조대현/김혜순/김화영/이외수/어효선  
현기영/이성복/김원일/이원복/조병화  
안장환/김성동/송기숙/박영환/김정빈  
김인환/김병익/강신재/권영민/김수정  
마광수/정비석/김형석/하근찬/이제하  
송영/천승세/임철우/김채원/조정래  
김초혜/김승옥/이상우/전상국/조성기  
손영목/김향숙/양귀자/강석경/신달자  
이인성/서정인/현길언/복거일/구중서  
정채봉/송우혜/강만길/이해인/윤후명  
노은/김용운/이원복/문정희/이영희  
박상문/박제천/고은/박화목/황필호  
유안진/정공채/윤홍길/임현영/이상문  
조해일/최인호/김홍신/이문열/문병란  
박경리/최인훈/박범신/김정환/이동하  
김병총/이경자/김성일

- 서평 12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의병전쟁연구」-양상현  
마쓰베이 김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신주백  
13 김왕석 외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유일상  
이영희 「자유인, 자유인」-한완상  
14 올레아리 「화성 1999」-최규홍  
김천해 「소설구조의 이론」-김주연  
15 권택영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정한용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홍정선

출판화제 16 취업 및 창업정보서 다양해진다

시론 17 맞춤법개정이 물고온 혼란과 손실-김시환

- 이책그사람 18 「바른말 바른 글」 펴낸 하희주용  
「윤동주, 그 죽음에...」의 작가 조한주씨  
19 「텔레마디고」 펴낸 서정옥씨

영시집 「Water, Fire & Earth」 낸 시인 원희석씨

연재기획 20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⑮

작품구상 21 장편 「떠나가는 배」-김향숙

화제의 인물 22 「한출협」 새 회장 된 김영종씨

서평가순례 23 30년 전통의 청주 '일선당'

세계의 출판 24 냉전시대의 美 정치인 연구서·외

독자서평 26 심상우/신규석/김난아/남영호

28 새로운 시집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이색출판/화제의 책

40 신간목록

47 일간지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구본창